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쌍둥이와 쌍둥이

표준어 규정이 생기면서 한자어와 우리말의 관계가 애매해진 것이 많다. 특히 '현대 서울 사는 교양있는 사람들의 발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한자어 본래의 발음보다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발음이 표준어가 된 것이 많다. 미류(美柳)나무가 '미루나무'로 되었고, '삿월세'가 '사글세'로 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중 하나가 '쌍둥이'이다.

요즘 다들 쌍둥이 쌍둥이가 많다. 필자도 쌍둥이 할아버지가 되었다. 인구가 늘어 나서 좋기는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사람들은 동냥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난리다. 아내의 얼굴에 기미와 검버섯이 피기 시작하였다. 쌍둥이는 쌍둥이의 비표준어이다. 한자어로는 '雙童'인데, 한글화되면서 한자어가 우리말화한 것이다.

그런데, 쌍둥이(쌍둥이로 태어난 아들), 쌍둥말이라고 할 때는 원래의 한자어가 살아난다. 쌍둥아들이 아니다. 어려운 몇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 팔삭둥(八朔童)(o)
  - 팔삭둥이(八朔둥이)(o)
  - 팔삭둥(x)
  - 팔삭둥이(x)
- 이렇게 표준어가 정해졌다. 내친김에 '쌍둥이'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를 '선둥이(先둥이)'라고 한다. 약둥이: 약고 똑똑한 아이 귀둥이: 특별히 귀움을 받는 아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의 규범 표기는 모두 '둥이'를 써야 한다. 약둥(藥童: 장난꾸러기, 나쁜 아이)은 표준어이나 '약둥이'는 '약바리'의 방언이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명예교수·한국어문화학회 회장

SkyeDaily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이상준 주필 황중택 인쇄인 임채형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20,000원/연 240,000원

스카이데일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밑, 아쉬움과 꿈



스카이 View

황중택 주필

격동의 2025년도 저물어 간다. 누군가는 황혼빛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짙게 묻어 있다. "미(美)는 우수(憂愁)와 함께 한다"는 존 키츠의 말처럼, 우리는 내면으로 젖어드는 화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나보다.

"이제 그만 훌훌 털고 보내주어야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하루를 매만지며/ 안타까운 기억 속에서 서성이고 있다/ 징검다리 아래 물처럼/ 세월은 태연하게 지나가는데/ 시간을 부정한 채 지난날만 되돌아보는 아쉬움/.../ 새해에는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찾고/ 낯설게 다가서는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올해보다 더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겠다..."(윤보영 '송년의 시')

그렇다. 세월이 감을 아쉬워하면서도 내일의 꿈을 새롭게 꾸는 게 사람살이다. 당송 팔대간인 시인 백거이는 나이 먹음을 기쁘게 여겼다. "거울 보고 늙음이 기뻐서(覽鏡喜老)"라는 시에서 그는 "늙지 않았다면 요절했을 것이고/ 요절하지 않았다면 노쇠해 마땅한 법/ 노쇠는 요절보다 나은 것/ 그 이치 의심할 나위 없네"라고 말했던 것이다. 세월의 흐름을 담



게티이미지뱅크

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다.

근래 크고 작은 송년 모임도 잦아들고 있다. 묵은 해를 정리하는 시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음을 확인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리라고도 하겠다. 늘 쫓기듯 총총걸음으로 살지만 그럴수록 가슴은 더욱 허전하다. 첨단 문명의 이기(利器)를 마음껏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가슴속엔 언제나 허전한 감동이 흐르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에 사람들의 뒷모습에 드리워진 그들은 길고

그 이유와 해답은 무엇일까. 물질은 유한하고 욕망은 무한하다는 사실 앞에 겸허해야 한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타인과 물질을 비교해 소외감에 허우적거리는 일상의 연속을 단절해야

한다. 무의식중에 길들여진 속도 경쟁과 핏빛 성취욕에서 잠시 벗어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세밑이 아닐까. 그리한다면,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세상을 조용히 관조하는 여유를 가지는 데서 작지만 뜻깊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대자유'를 구가할 수 있으리라.

천지는 쉼 없이 움직인다. '논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변함없이 운행하고, 만물은 여전히 낱고 자라나, 하늘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말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세월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가기에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고, 끝이 좋으면 또 다른 시작이 좋다고 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인격이 깊어지는 일이다. 인

격 완성은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 사변적이고 비판적이며 또한 분석적으로 접근해 그 정수를 다루는 데서 인격은 다듬어진다. 경험·지혜·지식·분별력·배려·경청 등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들이다. 문제가 되는 건 시간의 흐름을 대하는 방식이다. 세월의 변화를 불안과 원망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진정으로 풍요롭고 향기 나며 값진 공동선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고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의 기쁨이다.

세모(歲暮)다. 이루지 못한 계획들이 생각나서도 그러겠지만, 한 해가 가고 나이 들어간다는 화한이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물론 우주의 긴 시간에 비춰 볼 때 일 년은 찰나에 불과하고, 세상은 예전처럼 흘러가고 있다. 그래도, 무엇인가 공동체를 위해 남겨야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나눔 실천! 베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따뜻한 마음이 배어 있는 작은 손길에서 소외된 이웃들은 내일을 꿈꾸게 된다. 지구별에서 사는 모두는 다 귀한 존재이기에 하는 말이다.

'세근담'에 "천금으로도 일시적인 환심조차 사기 어려울 수 있고, 한 사발의 밥일지언정 평생토록 고맙게 여겨진다(千金難結一時之歡 一飯竟致終身之感)"는 가르침은 우리 가슴에 울림이 크다. 귀하고 많은 게 아니라, 정성의 문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함께 새 희망을 보자.

7.8조 KDDX, 절차는 있었지만 '시스템'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데일리 Talk

장혜원 정치부 기자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명 경쟁입찰'로 정리됐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일 무기체계로는 보기 드문 대형 사업이고, 이해관계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라는 두 조선-방산 대기업을 정면에서 맞붙게 만든 구조였다.

2년 넘게 이어진 공방이 경쟁입찰이라는 형태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일단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결정이 남긴 질문은 훨씬 근본적이다. 그것은 '누가 수주하느냐'보다 우리의 방위산업 의사결정 체계가 실제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다.

환경 획득 사업은 본질적으로 설계 연속성과 책임 일관성을 중시하는 영역이다.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로 이어지는 단계

적 구조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설계 변경 리스크와 전력화 지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안전장치로 축적돼 온 운영 원칙이다. 방산청 출범 이후 추진된 다수의 대형 사업에서 기본설계 수행사가 후속 단계까지 이어 간 것도 같은 이유다. 설계 요소-스텔스 형상-전투체계 통합 로직이 맞물리는 고난도 영역에서, 이 연속성은 관행이라기보다 사

고 가능성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번 KDDX에서는 그 원칙이 유지되지 않았다. 쟁점의 핵심은 보안 위반 사건 이후 감점 적용 문제였다. 이미 사법 절차와 제재가 한 차례 마무리된 사안이었음에도, 감점의 범위·시점·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판단의 기준선 역시 기술 연속성에서 규범적 책임과 제재의 원칙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눈점은 단순히 점수 산정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연속성·전력화 안정성과 보안 책임 규범적 정이라는 두 가지 축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었다.

문제성 장면은 그 선택 과정에서 정책 신호가 행정 검토보다 앞서 작동한 듯한 인상이 노출된 대목이다. 최고 통치권자의 공개 발언 이후 논의의 흐름이

급격히 빨라졌고,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이 확정됐다. 군사기밀 유출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방위사업은 기술 축적·예산 효율성·전력 공백 관리가 동시에 맞물리는 체계적 영역이다. 정무적 판단이 행정적·기술적 검토 위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그 파장은 정부가 아니라 군(軍) 조직과 산업 생태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경쟁입찰 전환 이후 한화오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는 곧바로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전히 변수는 다층적이다. 보안 감점의 실제 적용 방식, 기술·가격·국산 비율 가중치 구성, 선도함 이후 후속함 물량 배분 구조가 모두 최종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면, 이번 사업은 즉시 또 다른 소송·행정 갈등·일정 지연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경쟁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 경쟁이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 위에서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오히려 더 커진다.

지연의 비용은 이미 진행형이다. KDDX는 새로운

전력을 단순히 추가하는 사업이 아니라, 퇴역 일정과 연동된 전력 공백 보완 사업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일정이 더 늦춰질수록 피해 범위는 특정 기업의 손익을 넘어, 해군 작전 가용성·전력 준비태세·국민 안전 체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방산 생태계가 의존하는 신뢰의 축, 즉 "규칙이 예측 가능하게 작동한다"는 기대가 흔들리면 산업 참여자들의 투자·기술 축적·장기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다. 정치적 정당성·절차적 형평성·기술적 연속성 가운데 무엇이 최우선 가치인가.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사건마다 달라지는 '일시 해석'인지, 아니면 일관된 규범으로 축적되고 있는가.

방위산업은 어느 하나의 가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세 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시스템은 특정 순간에 정치적 판단의 무게로 기울게 된다. 경쟁입찰은 하나의 방식일 뿐, 해당 그 자체는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정해 보였다"는 형식적 정합성보다, "전력화와 산업 신뢰에 실질적 성과를 남겼는가"라는 결과 검증이다.

hyjang@skyedaily.com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

